

“미얀마 민간인 사망자 450명 넘어”

총맞고 산채로 불태워지기도 환자 돌보던 간호사 총탄에 사망 군경 끔찍한 만행 연일 이어져

미얀마 군경의 끔찍한 반인도적 만행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무차별 총질로 5세 유아를 포함한 어린이 등 무고한 시민 최소 114명이 목숨을 잃은 지난 27일(현지시간) 최악의 유혈 참사 다음 날에도 군경의 만행과 안타까운 희생은 이어졌다. 이에 따라 쿠데타 발발 이후 민간인 사망자 수만 450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현지 매체 미얀마 나무와 이라와디 등은 28일 제2 도시 만달레이에서 마을 주민 한 명이 총격에 부상한 뒤 불에 타 숨졌다고 보도했다. 미얀마 나무에 따르면 군경은 전날 밤 오후 9시에 아웅미티자군을 급습했다. 이 과정에서 주민인 아이 코(40)씨가 총에 맞아 다쳤다. 군경은 그를 체포한 뒤 불타는

페타이어 위로 던졌다. 이 페타이어는 주민들이 군경의 진입을 막기 위해 설치해 놓는 것이었다. 당시 현장을 목격한 한 주민은 매체에 “불길로 던져진 뒤 그는 ‘엄마 살려줘요’라고 외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 남성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군경이 계속해서 총을 쏘고 있어 주민들은 그를 구하려 집 밖으로 나올 엄두를 내지 못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이라와디는 이 남성이 마을 자경단원 중 한 명이었다고 전했다.

중부 사가잉주 몽유와 지역에서는 총에 맞아 다친 시위대를 치료하던 20세 간호사 한 명이 군경의 총격으로 사망했다고 이라와디가 보도했다. 이 지역에서는 또 남성 한 명도 군경 총격에 목숨을 잃었다고 매체는 전했다.

미얀마 나무는 만달레이에서 24세 여성 한 명이 숨지고 두 명이 다쳤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또 이날 오전 양곤 인근 바고 지역의 한 장례식에 모인 시민들을 향해 군경이 총기를 발사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장례식은 전날 군경이 쏜 총탄에 맞아 숨진 스무 살 학생을 추모하는 자리였다. 이

라와디는 군경이 도망치는 장례식 참석자들을 체포하려 했다고 전했다. 한 장례식 참가자는 “학생을 기리며 민중가요를 부르고 있었다”면서 “보안군은 도착하자마자 우리를 향해 발포했고, 사람들은 도망쳤다”고 말했다.

매체는 또 최대 도시 양곤의 흘라잉구에서는 이날 군경이 수류탄을 던지고 총기를 난사해 최소 두 명이 다쳤다고 보도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군경은 열차를 타고 와서 내린 뒤 총격을 가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이외에 중부 산주 주도 타웅지, 북부 카친주 주도 미치나 등지에서도 군경이 발포해 민간인 9명이 숨졌으며, 이 중 4명은 여성이었다고 미얀마 인권단체 정치범지원협회(AAPP)가 밝혔다.

AAPP에 따르면 지난달 1일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킨 뒤 이날까지 군경 총격에 숨진 것으로 확인된 민간인은 최소 459명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시신이 유기 또는 탈취된 경우나 행방불명 된 뒤 생사를 알 수 없는 경우도 많아 실제 사망자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미얀마 남단 꼬따웅에서 28일(현지시간) 주민들이 전날 군부 쿠데타 규탄 시위 도중 군경이 쏜 총에 맞아 숨진 시위대의 장례 행렬을 향해 ‘세 손가락 경례’를 하고 있다. 세 손가락 경례는 독재에 대한 저항을 상징한다. /연합뉴스

시진핑, 쿠바 지도자에 서신... ‘사회주의국가 연대’ 추진

주중 쿠바대사 “중국 신장 정책 지지”

미국이 동맹국들을 동원한 대중국 압박 강도를 높이자 중국이 쿠바에 손짓을 보내며 사회주의 국가 연대를 추진하고 있다.

29일 인민일보에 따르면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은 최근 쿠바의 라울 카스트로 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와 미겔 디아스카넬 쿠바 대통령에게 서신을 보내 각별한 우호 관계를 강조했다.

시진핑 주석은 “중국과 쿠바는 좋은 벗이고 좋은 동지이며 좋은 형제”라면서 “근래 양국 전통 친선은 갈수록 깊어지고 협력 또한 전면적으로 발전하

고 있다”고 극찬했다. 시 주석은 중국과 쿠바가 코로나19 사태 대응에서 협력해 관계가 심화했다면서 “중국은 확고히 쿠바의 사회주의 길을 지지하며 양국 관계가 새로운 단계로 격상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앞서 카스트로 비서와 디아스카넬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에게 서신을 보내 중국의 빈곤 타파 승리를 축하하면서 쿠바의 대중국 친선 협력이 확고하다고 밝힌 바 있다.

키를로스 미겔 페레이라 주중 쿠바 대사는 대미 비난을 쏟아내며 지원 사격에 나섰다. 페레이라 대사는 베이징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의 대쿠

바 경제 봉쇄 부당성을 역설하면서 “코로나19 사태 기간 미국 정부가 봉쇄 정책을 동원해 쿠바 민중에 인공호흡기와 검사키트 등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가중했다”고 비난했다. 그는 “미국은 늘 타국의 일에 간섭해 외교 기본 원칙을 위배한다”면서 “쿠바는 중국과 함께 타국의 내정 간섭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국이 민주주의와 인권의 깃발을 들고 중국 신장(新疆)과 홍콩을 문제삼아 공격하는 것은 정치적 동기”라면서 “쿠바는 중국의 신장 정책을 지지하며 중국을 비난하는 일부 국가야말로 역사적으로 중독 말살을 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캐나다 밴쿠버의 시민 수백 명이 28일(현지시간) 시내 밴쿠버 미술관 앞에서 아시아에 대한 증오를 멈출 것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애틀랜타 총격후 달라진 한인교회 정교분리 신념 벗어나 인종차별 맞서라 촉구

정치전문매체 폴리τικο 보도 ‘모범적 소수민족 신화’ 탈피 강조

한인 4명을 포함해 8명의 목숨을 앗아간 지난 16일 미국 애틀랜타 총격 사건이 미국 내 한인 교회의 행동 변화를 끌어내고 있다고 정치전문매체 폴리τικο가 분석했다.

폴리τικο는 27일(현지시간) ‘애틀랜타 학살이 한인 교회의 정치적 각성을 촉발한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교회가 신도들에게 정치적 관여와 함께 아시아계를 향한 인종차별주의에 맞서 일어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인교회에서 통상 정치 활동은 금지 대상이고 목회자도 교회와 국가의 분리를 굳게 믿지만, 미 시민권 투쟁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온 흑인 교회처럼 이번에는 한인 교회 지도자들이 변화를 요구하

는 초기 운동의 선두에 서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아시아 증오 반대 조직을 만든 한인 교회 목사, 한인 교회의 연합회에서 설교 시 인종차별 반대 메시지를 담으라는 지시를 보내거나 별도의 성명을 발표한 사례 등을 소개했다.

폴리τικο는 이런 노력이 민주당에 좋은 뉴스가 될 수 있다고 봤다. 대선 전 한 여론조사에서 한국계의 57%가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투표하겠다고 응답했지만, 또 다른 조사에서는 39%만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투표했다는 결과가 있다.

작년 9월 한 조사에서 한국계의 63%는 민주당이 공화당보다 인종차별 문제를 더 잘 대처한다고 응답했는데, 아시아계 미국인 평균보다 14% 높은 것이자 소수 민족 중 최고치였다. 이는 민주당이 향후 선거에서 한국계 공동체에 좀 더 나은 방식으로 접촉할 필요성을 보여준다는 게 폴리τικο의 분석이다. /연합뉴스

유럽 이어 미국도 백신여권 도입 준비

“백악관·민간기업 표준 방식 개발중”

유럽에 이어 미국도 이른바 ‘백신 여권’ 도입을 위한 준비 작업에 본격 시동을 건 모양새다. 워싱턴포스트(WP)는 28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 행정부와 민간 회사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표준 방식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유럽연합(EU)은 올해 6월 15일부터 백신 여권 이용이 가능해진다고 밝히는 등 다른 나라들도 자체 백신 여권 개발을 위해 속도를 내는 상황이다. 미국내 이러한 움직임은 미국이 백신 접종 속도에 박차를 가하며 경제 정상화 등 ‘일상으로의 복귀’를 모색하는 와중에 탄력을 받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올 여름이 되면 미국이 정상으로 돌아가기 시작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런 가운데 크루즈 여행부터 스포츠 경기 관련 분야에 이

르기까지 ‘영업 재개’에 앞서 백신 접종 증명서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히는 회사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WP가 전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백신 여권 관련 계획은 보건정보 기술 관련 부서를 포함, 주로 보건복지부의 주도 하에 추진되고 있다고 5명의 당국자가 전했다.

백악관도 이날 들어 유관 부처간 조율을 담당하며 보다 적극적으로 백신 여권 계획에 관여하기 시작했다. 제프 자이언츠 백악관 코로나19 조정관이 관련 업무를 이끌고 있으며 수일 내로 진전 상황을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한 당국자가 밝혔다.

백신 여권은 무료일 것으로 예상되며 항공사 탑승권과 유사한 스캔 가능한 코드를 제시하게 될 스마트폰 앱을 통해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WP는 전했다. 스마트폰을 통해 접근할 수 없는 미국인은 여권을 인쇄해야 한다는 것이 개발 주체들의 설명이다. /연합뉴스

ESS시공전문기업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중입니다

● **매매대상** ●

- 개발행위 허가전 발전소
- 개발행위 허가중 발전소
- 현재 공사중인 발전소
- 현재 운영중인 발전소
- 1차 FIT 종료중 발전소
- 곤충사육장 + 태양광
- 버섯재배사 + 태양광

선로 걱정 마시고 전화주세요!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주)

상담전화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010-2845-4754